

제367회국회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2019년3월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1

(10시07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분

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혼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

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살 수 있었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 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 주기 중독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 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헌입니다.

(「위헌을 아무데나 붙여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농담은 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농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울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 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치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문겠습니까.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살아 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밀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두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의장 문희상**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홍 대표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그게 무슨 연설이야!)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들어가요! 어떻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야당이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야! 야당이 그런 말 하면……)

(○이철휘 의원 단하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뭘 그만해요!)

(○이철휘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 들어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연설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뭘 방해해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지!)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하시라고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만, 그만.

**○나경원 의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경청, 경청!」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문희상** 뭐라고요? 안 들려요.

**○나경원 의원**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청! 경청!」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정회 선포할까요? 할까요? 아니야?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나경원 의원**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의장 문희상** 안 하면 정회 선포할게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들리잖아요!)

**○나경원 의원** 너무 시끄럽다고요.

**○의장 문희상** 어서 하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나경원 의원** 조금 조용하게 해 달라고……

**○의장 문희상** 계속하시면 다 기록에 남고 들려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안 들리잖아요!)

걱정 마시고 하라고. 기록에 다 남는다고.

**○나경원 의원** 한 초선 의원이……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안 들리지 않습니까?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고……

**○의장 문희상** 다른 때도 똑같았어.

(○정용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용히 하

라고 한 말씀만……)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 문희상** 자, 이제 그만!

**○나경원 의원** 국가채무 조작성……

**○의장 문희상** 이제 조용히 하세요!

자, 그만 그만. 조용, 조용히 하세요.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듣기 싫으면 나가요! 왜 연설을 방해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계속하세요.

**○나경원 의원** 국가채무 조작성 세상 물질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

(「발언을 취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

**○나경원 의원**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이제 그만해요, 그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철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그만하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사과해!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님, 뭐 하시는 거 난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당 대표 의원님들, 방해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품격을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이제 그만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연설하시고요.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원내대표 다,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의장님,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따위 얘기를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문희상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여야의 판단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영표 대표, 원고 좀 제대로 읽어 보세요.

문희상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사과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문희상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 좀……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외신 대변인이야?」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이런 회입니까? 원고를 잘 읽어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잘 안 들린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프롬프트 앞으로 해 주세요.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 두 축……

(장내 소란)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계속.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습니까? 국가채무 조작성 세상 물질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

세먼지……

(「웁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웁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에서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낸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 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의 장은…… 여러분, 이 의회의 장은,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 의회의 모습입니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샤우팅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웁소」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 문희상** 나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이제 조용히 해 주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신 대변인이예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의장 문희상** 발언 잠깐만…… 원내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잠깐만. 잠깐만.

(「야당 대표연설 들으러 왔지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연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냉정해지십시오.

**○나경원 의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앉아 주십시오.

**○의장 문희상**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이 보여 주는 모습은 이것은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의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장 문희상**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의장님, 의장님. 원고를 읽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 문희상**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 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오늘 또 나와요.

나는 의장이 의회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더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에 딱딱 도깨비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거론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조용히 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으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앞으로 좀 보내 주세요.

전력 수급……

(「몇 번씩이나 읽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합니다.

(「다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로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명백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 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쫓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840만 건, 규모·치밀성·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 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성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외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



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 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고백합시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하합니다. 좌파 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협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칠팔십 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쇄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짓는 이분법과 선민 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 하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자문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는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게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의원(27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태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3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김동민	김관영	김광철	김광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명욱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인숙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상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성희
박지원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세연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세진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김수민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김영춘	김재경	김정재	김정호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김정훈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김중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안상수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나경원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염동열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박명재	박범계	박성중	박순자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지원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욱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변재일	서삼석	서영훈	서청원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만희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송옥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오신환	오영훈	원유철	원혜영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전해철	전희경	정동영	정성호	윤재욱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태욱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이상현	이용호	이양수	이언주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지상욱	이완영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연혜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이종구	이종명	이철규	이주영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이진복	이채익	이현승	이철희
한정애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훈
황영철	황주홍	황희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산회 시 재석 의원(218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태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청가 의원(17인)

권미혁 김경진 김경협 김기선  
 김무성 박영선 송희경 이수혁  
 이재정 이종걸 전해숙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최도자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유인태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정경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1차관 조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규환	김정재	자유한국당	2019. 3. 11.
	신보라	이만희		
	이은권	이양수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4차 산업혁명 특별	신상진	함진규	자유한국당	2019. 3. 11.

○의안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명연·박덕흠·김성원·이명수·  
 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  
 윤종필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명연·박덕흠·김성원·이명수·  
 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  
 윤종필·김현아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천정배·황주홍·최경환(평)·  
 조배숙·송영길·정인화·유성엽·장병완·  
 정동영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이찬열·유성엽·장정숙·  
 김경진·황주홍·정인화·정동영·박주현·  
 천정배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11. 정부 제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김종희·이찬열·천정배·  
 황주홍·조배숙·정인화·유성엽·정동영·  
 장정숙 의원 발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  
 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  
 추경호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  
 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  
 추경호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조경태 · 김경진 · 이학재 · 이종명 ·  
박덕흠 · 김재경 · 박인숙 · 김승희 · 장석춘 ·  
김영우 · 전희경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태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추경호 · 김영우 · 윤상직 · 김상훈 ·  
강석진 · 백승주 · 이장우 · 최교일 · 김종석 ·  
金成泰 · 김성원 · 광대훈 · 엄용수 · 김광립 ·  
홍철호 · 이종구 · 윤종필 · 박덕흠 · 김선동 ·  
김규환 · 이학재 · 이종배 · 성일종 · 박맹우 ·  
정진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윤영석 · 김상훈 · 박성중 · 광대훈 ·  
윤종필 · 박맹우 · 황주홍 · 정갑윤 · 이동섭 ·  
김수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기동민 · 정춘숙 · 백혜련 · 김상희 ·  
김부겸 · 김병기 · 박정 · 고용진 · 김병욱 ·  
표창원 · 윤후덕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이용호 · 최도자 · 김동철 · 정성호 ·  
정인화 · 이춘석 · 정세균 · 김광수 · 정동영 ·  
정운천 · 전채수 · 오영훈 · 김영주 · 이상현 ·  
안민석 · 김관영 · 이원욱 · 백재현 · 안규백 ·

정춘숙 의원 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이찬열·권철승·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기동민·박정·전현희·최인호·이후삼·송갑석·민홍철·이재정·윤일규·김병기·김경협·조승래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철민·전재수·이개호·박홍근·신동근·정인화·윤관석·신창현·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

추경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신용현·임재훈·이동섭·김삼화·권은희·하태경·최도자·채이배·황주홍·김경진·이찬열·박선숙·김관영·이철희 의원 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윤영석·박성중·곽대훈·윤종필·박맹우·황주홍·정갑윤·이동섭·윤상직·김상훈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신용현·최도자·임재훈·이동섭·김수민·김삼화·김성식·황주홍·박경미·송희경·박선숙·김성수·金成泰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신용현·최도자·임재훈·이동섭·김수민·김삼화·김성식·황주홍·박경미·송희경·박선숙·김성수·金成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해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권철승·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윤영석·김상훈·박성중·김승희·곽대훈·윤종필·박맹우·황주홍·정갑윤·이동섭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신용현·최도자·임재훈·이동섭·김수민·김삼화·김성식·황주홍·박경미·송희경·박선숙·김성수·金成泰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이훈·송옥주·김병기·박정·신창현·전해철·정인화·유동수·서영교·고용진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정성호·송영길·조배숙·박명재·이원욱·김경협·백혜련·윤후덕·김정호·박정·유승희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신용현·최도자·임재훈·이동섭·김수민·김삼화·김성식·황주홍·박경미·송희경·박선숙·김성수·金成泰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관영·최도자·김삼화·이동섭·임재훈·전혜숙·김병관·김동철·김경진·권은희·박선숙·조배숙·이찬열·주승용·채이배·박주선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홍익표·박범계·백혜련·권미혁·김영호·안호영·소병훈·박주민·이재정·김병관·김민기·강창일·김한정·조정식·인재근·홍영표 의원 발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홍익표·김병관·김부겸·김한정·김현권·소병훈·송갑석·이용득·이재정·인재근·조정식·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홍익표·박범계·백혜련·권미혁·김영호·안호영·소병훈·박주민·이재정·김병관·김민기·강창일·김한정·조정식·인재근·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5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답변서 제출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서울특별시의 자료제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3. 1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